

“피해 줄이자”... 초·중 원격수업·한빛원전 예방 만전

역대급 태풍에 광주·전남 곳곳 비상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상륙하면서 광주·전남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어 5일을 기점으로 광주·전남의 하늘길·뱃길·철길이 모두 막혔다. 이날 광주공항에서는 제주, 김포 등으로 향하는 항공기 12편이, 여수공항에서는 8편이 결항했다.

전남 연안 부두에서는 52개 항로 83척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여수 8개 항로 10척, 목포 26개 항로 43척, 안도 13개 항로 23척, 고흥 5개 항로 7척의 배가 항구에 묶였다. 선박 통제는 오는 7일 태풍 경보가 해제된 뒤 안전 점검을 거치기 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6일 오후 3시까지 운행되는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일부 열차의 운행구간을 조정 또는 중지한다고 전했다.

경전선은 부천-순천-광주송정-목포 간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지된다. 호남선은 용산-광주송정역까지만 운행하고 목포역은 운행하지 않으며, 전라선은 여수엑스포역을 제외하고 용산-전주-익산역까지만 운행한다.

KTX는 호남선 목포역-광주송정역 구간, 전라선 여수엑스포역-전주역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만 운행한다. 이들 구간은 오후 3시 이후부터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영광 한빛원전도 힌남노 상륙을 앞두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태풍 내습 시 발전소 운영지침”과 “중사자의 현장조치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운영체계 점검을 하고 태풍대비 설비점검과 본부 내 취직지역 점검을 완료했다.

한빛원전은 5일 오후 5시에 운영지침 'C급' (정

광주·여수 항공기 20편 결항 전남 여객선 운항 전면 통제 등 하늘길·뱃길·철길 모두 막혀

한빛원전 'B급' 발령하고 매뉴얼 점검 등 선제적 대응 학교 체험학습·수학여행 취소

상운영하면서 재난상황 주시)을 발령한 상태지만 태풍의 이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조기에 'B급' (본부 직원 20% 대기)을 발령해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에서도 원격·재량수업을 진행하거나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하는 등 학생 피해 예방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하루 동안 전체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오전 10시부터 등교하되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전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단축수업·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 유치원 480개교 중 292개교, 초등학교 452개교 중 316개교, 중학교 255개교 중 154개교, 고등학교 144개교 중 63개교, 특수학교 9개교 중 7개교가 원격수업이나 재량휴업을 한다. 나머지 학교는 정상 등교한다.

태풍 영향 기간 동안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을 계획했던 학교들은 일정을 취소·연기했다.

송정중앙초, 문흥초 등 초등학교 2개교와 광주동



선별검사소 일시중단 합니다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상무지구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 검사소는 태풍 영향에서 벗어나는 7일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여고, 비아고, 송원여상 등 고등학교 3개교는 수학여행을 취소했으며 광주자연과학고는 수학여행을 연기했다.

또 모든 현장 체험학습은 취소됐다. 체험학습을 계획한 유치원 1개교를 비롯해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총 32개교가 수학여행·체험 학습을 취소했다.

전남에서도 유치원 1개교와 초등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7개교는 일정을 취소했으며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25개교는 연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역대급 태풍 오는데 수상레저? ... 여수해경, 2명 적발

역대 최강 수준의 태풍이 북상하는데도 바다에서 패들보드(카누)를 타며 수상 레저를 즐긴 3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5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께 여수시 오전동 모사금해수욕장 앞바다에서 2명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여수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출동시켜 A(31)씨와 B(31)씨를 안전지대로 이동시켰다.

이들은 이날 여수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1시간가량 패들보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상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 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된다.

해경은 조사를 거쳐 A씨 등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조폭도 MZ세대가 대세

집중단속기간 72명 검거... 10명 중 9명 이상이 10~30대

광주 경찰이 최근까지 100일간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모두 72명의 조폭이 검거됐다. 경찰에 붙잡힌 조폭 10명 중 9명 이상은 이른바 MZ세대로 분류되는 10~30대였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경찰은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0일간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경찰은 모두 72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 수사했다.

관서별 검거 인원은 광주청 강력범죄수사대(강수대) 55명, 서부경찰서 11명, 광산경찰서 5명, 북부경찰서 1명이다. 연령별로는 10대 2명(2.7%), 20대 57명(79.2%), 30대 9명(12.5%), 40대 이상 4명(5.6%)으로 10~30대가 전체의 94.4%(68명)를 차지했다.

경찰에 붙잡힌 폭력배들은 주로 조직간 다툼 및 보복폭행, 투자 강요 형식의 금품갈취,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청 강수대는 올 상반기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시내 술집과 유원지 등에서 조직간 다툼을 벌인 뒤 전국 각지로 은신한 2개 폭력조직 조폭 37명을 검거한 바 있다.

광주에는 총장OB파와 국제P,파를 비롯한 8개 폭력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경찰의 관리 대상 목록에 오른 조폭은 400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조폭들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룬살롱 등 유흥업소의 뒤를 봐주거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해왔으나 근래 들어선 사채업, 불법 스포츠 토도 등 도박사업, 대포통장 유통 등으로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엄단 기조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18 정신적 손배, 광주시가 일괄 지급하라”

5·18 부상자회 촉구

오월단체가 5·18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광주시가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5일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신적 손배’에 따른 위자료 미지급분을 산정하고 지원금과 함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경찰 고문 등 가혹 행위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 늦어지고 있고 정부가 항소를 잇따라 진행해온 데 따른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리한 소송보다는 광주시의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이 더 빠르다는 판단에서다.

단체는 “1990년 행정안전부에서 위임받아 5·18관련 보상업무를 진행한 광주시는 ‘국가보상법’이 아닌 ‘산업재해법상의 보상’을 적용해 부상자들

‘상이자’가 아닌 ‘장애자’로 분류하는 등 업무 자체가 미숙했거나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난감한 모양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보상신청 기간을 7차 보상신청 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을 그대로 담은 등의 오류로 당장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광주시가 일괄지급을 하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도 전부 취하하겠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고발조치까지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범기업 배상 위해 정부가 자세 전환해야”

강제동원시민모임 촉구

광주 시민단체가 지난 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나고자 광주를 방문한 박진 외교부장관을 향해 ‘정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박 장관의 광주 방문이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면, 판결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의 사죄가 우선이고, 하루 빨리 일본 전범기업 배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역할

을 해달라는 게 피해자들 목소리”라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대일 저자세 외교에서 탈피하고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일 박 장관은 광주를 찾아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8) 할아버지,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양금덕(93) 할머니 등을 만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수익 - 380만 ▶ 연 수익 - 4,560만 ▶ 매가 - 6억7천 ▶ 용자 - 3억6천 <p>중심사업,유흥가능,전용 100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 (용자 7억)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 rowspan="5">광주</td> <td>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td> </tr> <tr> <td>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td> </tr> <tr> <td>북구 연제동(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td> </tr> <tr> <td>북구 신동(아파트) 첨단자이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td> </tr> <tr> <td>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td> </tr> <tr> <td rowspan="3">전남</td> <td>광산구 안청동(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td> </tr> <tr> <td>장성군 북하면(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td> </tr> <tr> <td colspan="2"></td> <td>담양군 무정면(주택) ▶ 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	북구 연제동(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	북구 신동(아파트) 첨단자이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	전남	광산구 안청동(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	장성군 북하면(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	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담양군 무정면(주택) ▶ 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
광주	광산구 월곡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600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우산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4억3천														
	북구 연제동(근린상가) ▶ 감정가 7억2,200 → 최저가 5억														
	북구 신동(아파트) 첨단자이 ▶ 감정가 5억2,500 → 최저가 3억6천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400 → 최저가 1억4천														
전남	광산구 안청동(공장) ▶ 감정가 33억5천 → 최저가 23억5천														
	장성군 북하면(주택) ▶ 감정가 3억8,500 → 최저가 3억8,500														
	나주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담양군 무정면(주택) ▶ 감정가 8억6천 → 최저가 6억													
010-6670-9800		062-382-5500													